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과 한국 가족의 변화

The Discourse about ‘Postmodern Family’ and the Korean Family Changes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서수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 Seo, Soo-Kyung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III. 결론 및 제언 |
| II.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과 한국 가족 | 참고문헌 |

<Abstract>

In this paper I will try to analyze some studies about the ‘Postmodern Family’ in Western countries. I will try to find out, above all in Western countries, how much the concepts “Plurality”, “Individuality”, “Deinstitutionalisation”, “Relation” and “Postmodernism” are linked to each other. Also the ‘Postmodern Family’ concept is an interesting topic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recent changes and in future in the Korean family. In this paper I will try to explain the Korean family change with the concept and phenomenon ‘Postmodern Family’. The discussion about the ‘Postmodern Family’ will provide much stimulus for the Korean family research area. Also this discussion about ‘Postmodern Family’ for the recent Korean family research will be an important attempt to give a new light in studying the Korean modern family.

주제어(Key Words): 포스트모던 가족(postmodern family), 한국 가족 변화(korean family changes), 개인주의화(individuality), 다원화(plurality)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는 위험사회(U. Beck), 소비의 사회(J. Baudrillard), 정보사회(A. Toffler), 디지털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 후기근대 사회 등으로 부른다. 혹은 근대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고 보고, ‘다

른근대(andersmoderne)’ (W. Schmid)로 표현해야 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

을 보이는 현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이에 대처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방향을 찾는 일일 것이다.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들은 그대로 가족과 가족 생활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이 한 시대의 사회구조 및 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서구의 가족학자들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족을 이해하기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다(Hoffmann-Nowotny, Hradil, Luescher, Shorter, Stacey). 즉 '근대 가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포스트모던 가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물론 활발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명한 연구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연구 시도들은 매력적인 주제로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고, 연구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중요성 면에서도 결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동안 한국 사회도 많은 가족 연구의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특히 근대화는 한국 가족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종종 한국 가족은 더 이상 근대의 틀 안에서만은 해석되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 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21세기 한국 사회는 가족에 대한 근대적 시각이 아닌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근대라고 하면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를 가리킨다. 합리주의, 과학주의, 유물론, 이데올로기, 진보에 대한 확신과 같은 직선적 발전관, 진리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 같은 신념이 그 특징이다. 반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과도하게 포괄적이거나 협소한 근대적 아이디어들을 변형하려는 의도로 생겨났는데, 차이에 대한 민감성이나, 특수성, 불규칙성, 다양성 등이 그 주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엘킨드, 1999; 리프킨, 2000).

본 연구에서는 근대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 즉 서구에서 다루어진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이

오늘날의 한국 가족 변화를 이해하는데 적합한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한국 가족이 포스트모던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장현섭, 1995) 입장을 재고해 보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한국 가족이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울만큼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서구에서 논의되는 '포스트모던 가족'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들이, 만약 한국 가족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보여지는 특징이라면, 이를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가정해 보고,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담론을 통해 미래 한국 가족에 대한 전망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과 한국 가족

1.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담론

근대의 진보에 대한 확신은 가족형태의 진화에 적용되어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핵가족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았으며, 또한 산업화 이후 나타난 새로운 노동분업은 남성을 외부세계, 직업, 사회를 담당하고 여성을 가정, 집안일, 가족을 맡는 역할로 분리하였다.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자녀들을 위해 규칙을 설정하고 한계를 정하며 기준을 만드는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에 기초하였다. 반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며, 남녀역할에 있어서도 역할의 탈분화 현상을 보인다. 부모 자녀관계도 근대의 일방적 권위에 기초하지 않고, 상호적 권위가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엘킨드, 1999).

20세기 중반 이후로 서구 산업국가들에서는 변화하는 가족을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련성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종종 하고 있다. 물론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가 아직은 양적으로 풍부하지 않지만, 꾸준히 매력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연

구 범위도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1960년대 이후 서구 가족구조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다원화”, “개인주의화”, “탈제도화” 현상을 “포스트모던 가족”과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시도들은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 관계 및 생활을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가족형태의 다양성에 관해 논의할 때 서구에서는 이를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으로 보는 학자들(Hoffmann-Nowotny, Hradil, Luescher, Shorter, Stacey)이 있는데, 이는 가족과 관련한 포스트모던 논쟁이 “가족 생활의 다양성”이라는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진적 다양성(radical plurality)”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심적 사고를 이루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사회의 가족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로 적중할 것인가에 대한 가족분야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다. 이를 처음 시도한 쇼터(Shorter, 1975)는 “근대가족의 형성”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가족의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첫째, 부모의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상실, 둘째, 부부관계의 불안정화, 셋째, 동거로서의 가정의 해체,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보았다. 또 다른 그의 연구(Shorter, 1989)에서는 인간 사이의 성적인 결합을 설명하는 중심 사고로서 “관계(relation)”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 이는 후에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며, 가족에 관련된 인구학적 변화를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를 위하여 쇼터는 ‘포스트모던(postmodern)’을 ‘모던(modern)’과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흐라딜(Hradil)도 포스트모던 연구를 전통과 근대 그리고 포스트모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Hradil, 1989). 스테이시(Stacey, 1991)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지방의 포스트모던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으며, Cheal(1991)은 사회학의 입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했는데, 여기서도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베스터(Vester, 1993)와 윌크(Wilk 1990)가 포스트모던과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Luescher, 1995: 233-234 재인용). 뤼셔(Luescher)는 포스트모던에 관한 구상을 연구의 측면에서보다는 논의

(Diskurs)의 측면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적용범위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이해하는 이미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구상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그는 포스트모던 개념을 시대를 진단하는 복잡한 “해석틀” 혹은 “설명틀”(Postmoderne als Deutungsmuster)로 보고 있는 것이다(Luescher, 1995).

서유럽에서 가족 변화를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개인주의화”, “다원화”, 그리고 “탈제도화”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서유럽 가족의 인구학적 발달 경향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동거 및 독신가구의 증가이다. 동거의 목적이 개인적인 자기실현을 위한 것이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동거만으로도 자기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구 선진국에서의 동거의 형태는 전형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혼외 동거생활의 증가와 미혼 남녀들의 단독가구 증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결혼연령이다. 지난 30여 년 간에 걸쳐 서유럽에서는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졌는데, 이는 구조적 요인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가치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찍 결혼하는 것은 근대 가족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고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가족의 논리, 즉 “관계(relation)”의 논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성도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서는 가족생활과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본다. 제도로서의 결혼은 이후에 자녀를 원할 때 고려해 보는 일이 된 것이다(Shorter, 1989). 셋째, 출생율의 감소 및 무자녀 가족의 증가이다. 가족을 제도로서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세대간의 연결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가지게 된다. 이때 가족생활은 가족의 전통 및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족 의식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포스트모던 논리는 자녀출산을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자기실현의 산물로 본다.

포스트모던 논리에서 여성들의 출산 동기는 점점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늘날 서구 여성들이 자녀를 가지는 동기가 근대에서 제시되었던 당연한 어머니 되기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경험이라는 개인주의화된 측면에서 바라 본 벡-게른스하임(1998)의 설명은 상당히 포스트모더니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혼율의 증가이다. 이혼율의 증가를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만 보지는 않는다. 이혼율의 증가는 질적인 결혼 생활의 기능 약화 혹은 부부간의 불만족과 같은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그러워진 점, 이혼법, 양육권 그리고 여성들의 폭넓은 직업기회의 가능성을 포함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그리고 계부, 계모가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쇼터는 포스트모던 가족의 일반적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보았다(Shorter, 1989: 223-227). 첫째,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포스트모던 가족은 외부환경과의 관계가 매우 약한 것이 특징인데, 가족의 중요성은 물론 세대간의 응집력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요인을 중시한다. 성은 성공적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가족 내에서든지 또는 외부에서든지 “관계(relation)”를 통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제도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자기실현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가 자기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는데, 결혼생활에 있어서 성적인 요소의 강조는 앞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 및 가족 체계의 또 다른 요소. 포스트모던 가족에 있어서 부모와 그들의 성인자녀 사이의 관계는 매우 느슨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인구학적 발달 경향에서 보여지는 것과, 쇼터가 주장하는 포스트모던 가

족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오늘날 서구 가족에서는 “개인주의화”, “다원화”, “탈제도화”, “관계” 같은 개념들이 언제나 오늘날의 변화된 가족을 이해하는 핵심내용으로 등장하며, 그런 특성들이 원인이나 결과로서 작용하여 포스트모던 가족이라는 일반적 성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가족 변화를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안에서 생활 유형이 개인주의화 되어간다는 포스트모던 가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족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변화를 결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보는 대부분의 가족사회학 이론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를 구조적 변화(예를 들면 산업화 과정)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종교적 규범의 의미 상실)의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호프만-노보트니(Hoffmann-Nowotny, 1991, 1995)는 그의 구조-문화-도식의 이론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과 생활유형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런 접근방법을 통해 생활형태 및 생활양식의 빠른 변화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의 이론은 우선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는,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에서 게젤샤프트(Gesellschaft)로의 과정에서 생활형태의 개인주의화(Individualisierung)를 가능케 하고 동시에 필연적으로 만든 구조적 변화(struktureller Wandel)가 수반되었다는 점과, 둘째, 구조적 변화는 개인주의화의 과정을 촉진하고 동시에 합법화시키는 문화적 변화(kultureller Wandel)를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이 도식은 간단히 말해 구조와 문화가 집단의 중심적 차원이라고 보는 것으로, 구조는 집단적 단위의 위치체계(Positionssystem: 개인, 단체, 계층, 조직, 국가 등)로 정의되며, 문화는 이에 상응하는 상징체계(Symbolsystem: 가치, 규범, 제도, 사고 등)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는 상호의존적인 것으로서 사회는 일정한 구조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근대로 향해 가는데는 생활 유형 면에서 개인주의화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과, 개인주의의 진행을 촉진하고 동시에 합법화 한 문화적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상응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

다. 이를 통해 소위 “개인주의화의 과정(Prozess der Individualisierung)”이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호프만-노보트니의 구조-문화-도식을 요약하면, 앞으로의 (포스트모던) 사회는 구조적 특성 면에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세분화와 복잡성 역시 발전할 것이며, 개인의 유동성은 핵심요인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특히 여성에게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복합적, 부분적 통합은 결코 감소되지 않을 것이며, 여성들에게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도 중산층은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며 복지국가의 확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에 상응해서 문화적 차원들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데, 문화적 변화는 게젤샤프트적 가치를 향해 계속 변화할 것이며, 보편주의와 다원주의는 그 중요도가 더할 것이고, 개인적인 자기해석(정체성)의 압력 또한 확산될 것이다. 업적 이데올로기는 그 최고치를 초과하게 될텐데, 그러나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프만-노보트니는 그의 구조-문화-도식 이론이 물론 국가적, 지역적, 사회 구조적 차이, 즉 고도로 발전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 지역 간에, 그리고 종교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 지역 사이에, 또한 도시와 지방, 혹은 사회 계층과 생활상태 및 사회분위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은 동일하다고 보았는데, 그의 주장은 현재의 세계화 추세를 감안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가족형태 및 가족생활은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변화하는 것이므로, 한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파악하는 일은 가족연구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도식은 서구국가들의 사회구조 및 문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그의 구조-문화-도식이 가족 연구를 위해 특히 기여하는 점은, 가족이라는 동일한 연구대상을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심리학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회학적 차원 모두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모델로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

다는 것이다.

사회적 구조적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 변화 사이에서 개인주의화의 과정이 발달되었다고 한다면, 개인주의화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과연 어떤 삶의 유형들이 나타날 것인가가 이제 의문으로 남는다. 서구의 가족학자들은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발전했던 전통적 가족형태가 오늘날은 단순히 지속적인 변화의 단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해체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결혼이나 가족이 앞으로 법적인 제도로서 존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정한 공동생활에 맞는 보편적이고도 사회적으로 잘 분배되고 통제된 역할이나 규범의 틀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호프만-노보트니(1991, 1995)는 개인주의화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형태를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가족 형태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파트너와 동반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랑(Liebe)’과 ‘주거(Wohnen)’ 그리고 ‘부모됨(Elternschaft)’의 세 가지 큰 기둥이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 양식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게젤샤프트에서 게마인샤프트로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분리동거(living apart together: getrenntes Zusammenleben)’ 형태를 가장 적합한 미래의 가족형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호프만-노보트니가 말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포스트모던 가족 유형이다.

① 혼합적 가족형태: 부부가 서로에게(특히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가족의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가족은 성인 구성원들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게젤샤프트’이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존적인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게마인샤프트’라고 할 수 있다. 즉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가족형태는 가까운 장래에 가정을 이루는 가족원들에게 점차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형태는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하며, 인생 주기에 걸친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독신: 모든 제도화된 것이 약화되고 개인주의 화가 강화되면서 독신으로서의 생활은 포스트모던 가족유형에서 더욱 매력적인 대안형태가 될 것이다.

③ 시민가족 (또는 근대 핵가족): 현재 가장 보편적인 가족형태인 핵가족은 미래에도 계속 영향력을 가지고 장기간 지속되는 형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형태는 사회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변화에 맞추어 강화 또는 약화된 형태로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며 그렇게 안정된 가족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④ 분리동거 형태: 개인주의화된 생활 유형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인다. 이는 각자의 생활공간이 상당히 명확하게 분리되면서도 자율적으로 규칙이 형성되는 생활형태이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분리되면서 함께 사는 이 같은 가족형태는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근대 또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에 상대적으로 가장 최선의 관계양식으로 보인다. 분리동거 형태는 우선 공간적으로 분리되는데, 예를 들면 한 건물에 두 개의 독립된 공간을 갖거나 또는 각각 다른 건물에 자신들의 독자적 공간을 갖는 것이다. 분리동거 형태는 두 개로 분리된 독립된 체계로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 모델에서는 남녀의 성에 따라 기능영역이 지정되었고 남녀 모두 이를 받아들였으나, 분리동거 형태에서는 분리의 유형이 전통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두 사람이 각자의 차별적 기능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가족이 형성되면 가족이 해체될 경우에 부모 편에서나 자녀 편에서 가족이 해체될 경우보다 정신적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족형태는 처음부터 '중복된' 편부모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편부모 가족: 이혼이나 별거와는 상관없이 편부모 가족 형태는 양적인 면에서나 전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 뚜렷이 증가할 것이며, 이 가족형태는 앞으로 결손가족이 아닌 독립적인 가족형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학자 벡(Beck)과 벡-게른스하

임(Beck-Gernsheim)의 연구(Beck, Beck-Gernsheim 1990; Beck-Gernsheim 1998) 또한 포스트모던 가족의 개인주의화, 다원화, 그리고 탈제도화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전통과 근대 그리고 포스트모던 가족을 이해하는데 풍성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벡과 벡-게른스하임에 따르면 미래에는 특정한 유형의 가족이 다른 유형의 가족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거나 혹은 따로 사는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나란히 병존하게 된다고 보았다(1990). 이러한 관점은 '사랑' '주거' '부모됨'의 세 가지 기둥이 미래 가족 변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미래에 각 개인은 점점 더 삶의 과정에서 독신이나 결혼, 결혼 전의 동거,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 한두 번 이혼한 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모되기 등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호프만-노보트니의 관점과 일치한다. 그밖에도 그들이 미래의 가족을 전망할 때 잊지 않고 덧붙이는 점은, 우리가 근대 핵가족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들은 이기주의의 징후로 간주하며, 이른바 표준적 가정규범을 지향하여 가족을 구한다는 오늘날의 모든 조치들은 잘못된 시도라고 주장한다. 사적, 공적 생활에서 성의 구질서를 복구하려는 시도(이는 근대 핵가족에서의 성역할 분화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가족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격변을 사적인 문제로 규정하거나, 사회적 변화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인 것이다. 벡-게른스하임은 그의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최근의 저서(1998)에서 개인주의화된 변화된 사회에서, 즉 가족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Was kommt nach der Familie?)"라는 선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 이후에 오는 것은 "가족이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은 기존의 개념과는 다르고, 다양하며, 더 좋다고 말한다. 이혼이나 재혼, 그리고 본인이나 상대 파트너의 자녀들을 포함한 과거의 가족이나 현재의 가

족을 동반한 또 다른 재혼으로 성립되는 거래 가능한 가족, 교환 가능한 가족, 즉 다양한 가족인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결혼 전이나, 결혼한 상태이거나 혹은 결혼 후에, 그리고 결혼 신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리고 자발적이든 혹은 강제적이든, 동성 혹은 이성간의 관계 유형을 가지고 유희하고, 실험하고 곡예를 부리며 여러 명의 파트너와 안정된 생의 단계를 반복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요약하면,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연구 대상이 아닌 시대를 진단하는 해석모델(Deutungsmuster)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완성된 이론 틀이 아닌 이미지를 형성하는 개념이며, 연구의 측면에서보다는 담론의 측면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가족과 관련된 서구 사회의 눈에 띄는 인구 사회학적 발달은 "개인주의화", "다원화", "탈제도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담론을 활발하게 조성하는 핵심 개념인 것이다. 포스트모던 가족은 근대 가족이 계속적인 변화의 단계에 (이는 진보라는 근대성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해체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때 결혼이나 가족이 앞으로 제도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인 역할과 틀이 존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대답은 여전히 "가족이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인 것이다. 즉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담론을 활발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2. 한국 가족의 포스트모던 경향

앞에서 살펴본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담론이 과연 오늘날의 한국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로) 유익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의 특징들이 한국 가족 변화를 이해하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한국 가족도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한국 가족 연구자들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현섭은 가족의 미래에 관한 그의 연구(1995)에서 변화하는 한국 가족이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의 연구는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한국 가족 연구 상황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한국 가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는 한국 가족이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과연 그는 어떤 관점에서 한국 가족이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980년대까지의 한국 가족 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결같이 한국 가족이 전통적 확대가족(혹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30년 간의 가족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놀랍게도 완만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 가족이 핵가족화 되었다는 논의는 단순히 가족 구조상에 나타난 수치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차원과 더불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국 가족의 부모 자녀 관계는 산업화로 인해 거리 상으로는 떨어져 살고 있지만, 경제적, 물질적, 물리적, 정신적 유대 관계는 지속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확대가족이 붕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국 가족은 핵가족화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가족 생활은 과거처럼 전통적 확대가족의 일정한 유형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즉 "가족은 반드시 이렇게 구성되어야만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은 크게 약해졌고, 핵가족형 가구는 완만하게나마 줄어들어 왔고, 대신 비주류라고 치부해 오던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가족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족 생활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데, 특히 개인의 자유경쟁의 논리나 효율성 극대화 같은 원칙, 다시 말해서 개인의 역량과 자유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개

인주의적 규범이나 직장윤리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이는 개인주의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보여지는 '규범적 불확실성'이나 '다양화'를 한국 가족이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또한 포스트모던한 사회의 가족 상황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가를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가족 변화에 대한 해석은 '전통의 깨어짐'이라는 관점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 가족 생활이 포스트모던하게 되었다는 말은 학문적으로 별 의미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그의 입장이다(장현섭, 1995).

구조상의 수치뿐 아니라 규범적인 차원과 더불어 한국 가족 변화를 해석해야 한다는 그의 논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규범적 불확실성'이나 '다양화'를 포스트모던화가 아닌 전통의 깨어짐이라고 바라 본 그의 관점은 반론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 같다. 서구에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포스트모던 가족' 논의는, 아직까지 한국 가족 변화와 미래를 파악하기 위한 이렇다 할 이론적 관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논의는 예측하기 어렵도록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가족 생활을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 즉 가족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담론이며 가족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개인주의화, 탈제도화, 다원화 현상은 장현섭의 연구에서도 보여주듯이 한국 가족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관점이 아닌 '전통의 깨어짐'은 또한 "탈제도화"라고도 달리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포스트모던한 사회의 가족 상황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가를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그의 지적은, 앞에서 살펴본 호프만-노보트니가 시도한 구조-문화-도식이 가족 생활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포스트모던 가족'의 담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가족이 포스트모던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운데, 그는 특히 근대성의 논리에 속하는 특성인, 식지 않는 혼인제도에 대한 열망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혼인제도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있다. 가족 생활이 그토록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혼인 연령기 미국인 미혼 다섯 중에서 네 명이 여전히 혼인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1960년대 이래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1980년대 이후로 이혼율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에 대한 열기가 식기는커녕 1980년을 고비로 급증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근대적 속성이 지속되고 있는 예는 가족 생활에도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관찰되는 가족 생활의 다양화는 사회 변동으로 인한 기능상의 변화일 뿐 사회 내부적으로 제도화 될 정도까지 진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생활의 형태가 선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성애자, 동거생활자, 이혼 등의 성과 가족 생활에 관련된 갖가지 태도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전통적 성규범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미래에도 어떤 형태로든 연속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가족 생활이 다양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 사회가 포스트모던하게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물론 그런 사회에 좀 더 접근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본다"(장현섭, 1995: 446-447).

본 연구자는 혼인제도에 대한 열망을 근대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보지 않고 포스트모던의 다양성이란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포스트모던적 개인주의화 경향에 따른다면 모든 사람들은 한번쯤은 결혼이라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이 근대성을 열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혼인열망은 전통적 가족과 결혼제도에 대한 동경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인주의 경향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열망이 줄어들지 않

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혼율 증가가 없다면 혼인열망이 근대적 결혼의 열망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지만, 이혼율이 증가하고 동시에 혼인열망 또한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는 오히려 다양한 생활 유형의 출현이라는 포스트모던 경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개인주의화 경향은 특히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여성들은 '양분된 근대 (halbierter Moderne)' (즉 평등과 자율성 그리고 개성 같은 개념들은 근대 시대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제외된 남성만의 영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인 서구의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더 이상 여성이 제외된 양분된 근대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Beck과 Beck-Gernsheim은 보고 있다)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포스트모던 가족' 과 한국 가족의 미래

연구자는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논의가 20세기 중반 이후로 급변하고 있는 서구의 가족과 가족생활을 이해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해석 틀이라는 점과, 또한 앞으로의 한국 가족과 가족생활을 예측하고 담론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한국 가족 변화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제도는 소유제도, 계급구조, 상속제도, 교육제도, 사회보장제도, 테크놀로지의 수준 및 산업구조, 전통적 사회구성원이나 조직체계와 같은 사회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면서 변한다. 조정문, 장상희(2001), 그리고 조은(1999)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와 가족의 변화를 정보화 사회의 발전이라는 구상 안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측하는 미래 한국 가족은 '포스트모던 가족'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가족관계와 가족의 기능 그리고 감성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녀는 각각 자신의 행동원칙과 시간대를 가짐으로써 가족의 개인화가 더욱 가속되고 부부도 각각의 개인화된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단절 현상 또한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의 독자성과 각자의 자율적 활동을 인정하고, 가족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과 자유 그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개인의 성장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가족과 가족이라는 집단의 유지는 더 이상 강제와 구속의 제도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포스트모던 가족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화,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가족생활의 탈제도화가 미래의 한국 가족 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및 남성의 가사참여 증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족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가족생활에서는 더 이상 남편이 할 일과 아내가 할 일간의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게 되면서 부부관계의 성격도 변할 것이다. 남성들의 정서적, 성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가정적이고 섬세하며 잔인성을 쓸 줄 아는 새로운 남편상이 이상형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도 가정관리, 사무직 노동자인 동시에 성적 매력도 지닌 '신가정주부'의 여성상이 환영받을 것이다. '집안의 천사'나 '밀착된 모자관계'가 근대 산업사회의 이상적인 어머니 상으로서의 산물이라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부부간의 서로에 대한 물리적 의존이 약화되면서, 서로를 감정적으로 묶어두는 친밀감이 없다면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부간 독립성은 증가할 것이며, 경제적 의존이나 제도적 구속과 같은 외제적 요인보다는 감정적 친밀감과 같은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결속이 강조될 것이다. 재생산 기능으로서의 성의 의미는 탈색되고 자녀 출산을 위한 정보보다는 쾌락을 위한 성이 더욱 일반화함에 따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이 변화하고 이를 둘러싼 기존의 가치가 전복되며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급진적 담론이 형성될 가능성

도 높아진다. 다양한 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 형태의 가족생활만을 고집하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욕구에 따른 개별적인 가족생활을 인정하게 되는데,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개방결혼,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 때는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결혼생활 등도 나타나고, 심지어 서로를 구속하는 결혼보다는 독신이나 동거생활을 선호하기도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공동체를 결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공동가족을 결성하기도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전형적 가족인 핵가족 이외에 동거가족, 독신 가족, 계약결혼, 개방결혼, 동호인 가족, 동성애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등장할 것이다. 물리적 몸은 가정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바깥 사회 관계망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족의 의미가 재정의될 것이다. 네트워크형 가족이 '새로운 가족'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 가치와 실제 생활과의 차이를 보이는 전통적 부계 혈연가족은 긴장과 '해체'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가족이 갖는 지위 부여나 '도구적 기능' 보다는 삶의 양식을 함께 누리는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조은, 1999; 조정문, 장상희, 2001; 함인회, 2001).

특히 포스트모던 가족에서 보여지는 개인주의화 경향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개인주의화의 방향은 더욱 강해져서, 여성과 남성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주의화'는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고안물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 개인주의화는 개인적 자율화를 더욱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하에서 전개되고, 개인은 전통적 속박과 부양관계에서 벗어났지만, 그 대신 표준화되고 통제받는 노동시장과 타자화되는 소비시장의 공략과 계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을 탈주체화하고 유행, 사회정책, 경제주기, 시장에 예측시키는 또 다른 모순을 낳았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남성들은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로서

젊어져야 하는 부담에서는 점차로 해방되었지만, 그 해방에 상응하는 권위까지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남성에게 예측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한 남녀갈등은 가족 담론에서뿐 아니라 제도변화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생계책임자가 아니면서 가부장적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남편과 경제적 독립을 통해 종속적 위치에서의 탈피를 원하는 아내들의 관계는 이혼율의 증가와 부계중심 가족제도에 대한 도전이 조직화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즉 이런 갈등들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 사안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조은, 1999; 함인회, 2001).

앞으로 한국 가족은 개인주의화, 탈제도화, 다원화 등과 같은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에서 등장하는 현상들을 더욱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서서히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가족은 근대와 포스트모던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 해결 가능성들을 모색할 것이다. 조은(1999)과 장현섭(1995)은 그러한 시도를 공동체 운동에서 찾고 있다.

"지역사회를 단위로 사회 전체가 동원되는 국민 운동이 있어야 한다. 마치 1970년대의 한국 사회가 자라거나 '잘 살아보세'라는 열기로 휩싸였듯이 이웃을 살리자는 도덕적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장현섭, 1995: 467).

"21세기 새로운 공동체는 아시아적 또는 유교적 가족주의 가치를 부활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를 얼마나 철저하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아시아적 자본주의의 원동력으로 미화되고 남녀유별 논리가 정당성을 얻게 되는 신보수주의 가족담론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21세기 공동체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함께 하고 개별화할 부분은 남겨놓는 '따로 또 같이' 공동체가 그 대안일 가능성이 크다"(조은, 1999: 52-53).

조은의 '따로 또 같이' 공동체는 개인의 자율성

과 개성 그리고 독립성을 인정하는 개인주의화 경향에서 보여지는 “개인적 선택”과, 공동 생활을 위한 시민의식과 가족 생활이라는 “사회적 연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21세기의 변화된 사회에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장현섭이 말하는 공동체 운동과는 매우 구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가 동원되는, 즉 1970년도에 있었던 국민운동 차원의 공동체 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21세기는 한국사회가 산업화 과정에 막 들어서기 시작한 197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가 근대적 이상을 지향한 시기였다면 21세기는 개인주의와 다원화 그리고 탈제도화의 특징을 가진 탈근대로 향하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가 동원되는 획일적 운동보다는 개인적 선택(“따로”)과 사회적 연대(“같이”) 모두를 종합할 수 있는 공동체 운동이어야 한다는 조은의 주장이 설득력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 생활에 있어서도 가족 구성원 각자가 (파트너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과 개성을 보장받으면서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을 이루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든스(1998)가 말하는 민주주의 가족은 미래 한국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우파들의 전통적 관점(즉 아버지가 없는 것은 이 세대의 가장 해로운 인구학적 추세이며, 그것은 또한 범죄, 미성년자 임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의 원인이 된다. 가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혼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동성애자 가족과 같은 이단적인 가족 관계가 정부나 종교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동성 결혼은 계속 불법화되어야 하며, 편부모 가정을 조장하는 복지 정책도 그러한 효과를 없앨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민주주의적 좌파들의 관점(그들에게 현대에 나타나는 가족의 양상은 왕성한 자기 증식의 양상이다. 결국 다양성과 그것

에 대한 선택이 이 시대의 표어라면, 왜 이러한 것들이 가족의 문턱에서는 중단되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처럼 적절하게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고, 적당한 지원만 주어진다면 편부모도 부부처럼 만족스럽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이상적인 가족상으로 민주주의 가족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남녀평등에서 찾고 있다. 그는 남녀평등의 민주주의에서 가족생활이 어떻게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연대를 결합시킬 수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좇아야 할 기준들이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공공 영역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적 평등, 개인적 권리, 폭력 없이 전개되는 쟁점에 대한 공개 토론, 전통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닌 협상의 대상이 되는 권위”에서 찾을 수 있고, 가족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평등, 상호 존중, 자율성, 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들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거의 적용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에 대해 여전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것은 이전보다 한층 더 개방적이고 타협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변화 속에서, 심지어 이혼과 같은 급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능력이 개인적 행복을 위해서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된다. 아이들의 보호와 양육은 가족 정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이다.-- 민주적 가족 관계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수반한다.-- 탈전통화 가족에서는 결혼과 부모역할이 분리된다.-- 혼외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은 줄어들 것 같지 않고, 평생 가는 성적 동반자 관계는 확실히 점점 더 감소될 추세이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계약적 헌신이 결혼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고, 자녀 양육은 부모 양측에게 법률로 구속하는 문제로 만들어 갈 수 있고,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버지들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자녀 양육에 관한 한 민주주의는 비록 현재 상황에서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공동 양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가들은 사회

통합을 촉진하려면 강한 가족이 필요하다고 종종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지만, 몇 가지 유보 조건이 있다. 첫째, 가족은 부모가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만 관련한 것이 아니다. 단지 부모들만이 자식들에게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다. 자식들도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우리는 강한 가족이 반드시 사회적 연대를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가족 사이의 강한 유대는 그 가족들이 내향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외향적으로 볼 때에만 비로소 시민적 통합의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볼 수 있고, 강한 유대를 가진 가족이 내가 말하는 사회적으로 통합된 가족이다. 가족 관계는 사회 생활이라는 더 넓은 구조의 일부이다”(기든스, 1998: 149-153).

민주적 가족(기든스, 1998)

정서적, 성적 평등
관계에 있어서 상호 권리와 책임
부모의 공동 양육
평생 양육 계약
아이들에 대한 타협적 권위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책무
사회적으로 통합된 가족

물론 기든스가 말하는 민주주의 가족은 또 하나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과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가족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족이라는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개인의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원활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정책은 가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히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해 온 집단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다. 그리고 가족생활의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는 여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조정문, 장상희, 2001: 407)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고, 개인주의화의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족의 중요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인주의

화 경향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실현을 위하여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는 경험을 하게 할 것이다. 또한 남성들도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파트너 혹은 자녀와의 밀착된 정서적 관계를 통하여 내면적 자아실현을 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에서 의미하는 가족은 근대의 이상(평생 동반자로서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 등)이었던 핵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족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수혜자 중심의 가족정책으로 가는 것은, 미래 사회의 포스트모던 가족의 요구와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발상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정책방향은, 그 구성원들의 삶의 경험과 자아실현을 펼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공간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주의화와 대치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가족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없어지거나 무가치한 장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개인 경험의 장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보다는 가족이라는 통합된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 방향이 앞으로의 미래 한국 가족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이진숙, 2001; 서수경 2001).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부의 창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의 창설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나,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문제가 가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관점(장현섭, 1995), 즉 근대에서 제시했던 가족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족부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획득된 가족의 의미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 답론은 미래 한국 가족을 전망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한국 가족은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족 연구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가족’을 연구하는 서구의 가족학자들은 포스트모던에 관한 구상을 연구의 측면에서보다는 담론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담론의 차원이라고 해서 그 적용범위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족을 이해하는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구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가족 구조와 생활에서 보여지는 개인주의화, 다원화, 탈제도화, 관계의 중요성 같은 현상들은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에 생기를 불어넣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지난 30년 간의 한국 가족 변화에 대하여 한국 가족이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다고 단정 내릴 수는 없겠지만, 개인주의화와 다양한 가족의 출현 그리고 탈제도화 되는 경향은 뚜렷하다. 즉 한국 가족 변화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에서 등장하는 현상과 많은 측면에서 일치한다면, 한국 가족의 변화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담론화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는 한국 사회와 가족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가 담론의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가족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외에,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가족 갈등과 문제는 더 이상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무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가족에 대한 이상이 더 이상 새로운 포스트모던 사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핵가족의 신화”나 “모성애의 신화”를 통해 여성들의 개인적인 자아실현의 영역을 제한시킨채 산업화를 이루어왔던 근대 사회는 이제 차츰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는 결국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 같이 여성의 실제적 문제인 동시에 가족의 사적인 문제가 더 이상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

사안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공적 사안을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하여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포스트모던 가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가족정책이 현실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앞으로의 가족정책에서는 근대적 핵가족에 대한 이상을 탈피하고, 다양성이 강조된 새로운 가족 이미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로서의 가족이 아닌, 경험과 자기실현을 위한 장소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과 가족문제를 사적인 영역의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사회의 공적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 제도로서의 가족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생활에 적합한 보편적인 역할과 규범의 틀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한 ‘따로 또 같이’ 공동체나, ‘민주주의 가족’ 원리는 공동체로서의 미래의 한국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원리에 입각하여 공적 사안으로 만드는 작업은 이제 가족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 참고문헌

기든스, 앤서니(1998). 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144-153.
 리프킨, 제러미(2000). 소유의 종말. 민음사, 274-322
 백, 율리히, 백-게른스하임, 엘리자벳(1999).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옮김. 새물결.
 백-게른스하임, 엘리자벳(2000).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 이재원 옮김. 새물결.
 보드리야르, 장(2000).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서수경(2001). 독일과 한국의 가족교육 비교 연구-사회정책적 차원. 한독교육학연구, 6(2).
 엘킨드, 데이비드(1999). 변화하는 가족. 이동원 외 옮김. 이화여대출판부
 이진숙(2001). 새로운 시대의 결혼문화와 가족의 미래. 탈근대세계의 사회학. 우리사회문화학회편.

- 157-182.
- 장현섭(1995). 가족의 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431-473.
- 조 은(1999).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봄호, 45-53.
- 조정문, 장상희(2001).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 토플러, 엘빈(1992). 제3의 물결. 범우사.
- 함인희(2001). 다양한 가족: 신화로부터의 탈출.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이동원의 공저. 양서원.
-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Beck, U., Beck-Gernsheim E. (1990).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Beck-Gernsheim E. (1998). Was kommt nach der Familie?. Verlag C. H. Beck Muenchen
- Hoffmann-Nowotny, H.-J. (1989). Kultur und Gesellschaft. Zuerich.
- Hoffmann-Nowotny, H.-J. (1991). Lebensformen und Lebensstile unter den Bedingungen der(Post-)Moderne. in: Familiendynamik (H.4), Stuttgart.
- Hoffmann-Nowotny, H.-J. (1995). Die Zukunft der Familie - Die Familie der Zukunft. in: Familie der Zukunft, Gerhardt, Hradil, Lucke, Nauck (Hg.), Leske+Budrich Opladen.
- Hradil, S. (1989). Zwischen Moderne und "Postmoderne". Soziokulturelle Differenzierung und die Definition sozialer Ungleichheit. in: Kultur und Gesellschaft. Zuerich.
- Luescher, K. (1988). Familie und Familienpolitik im Uebergang zur Postmoderne. in: Die "postmoderne" Familie: familiale Strategien und Familienpolitik in eine Uebergangszeit. Universitaetverlag Konstanz.
- Luescher, K.(1995): Postmoderne Herausforderungen der Familie. in: Familiendynamik (H.3).
- Peuckert, R. (1991). Familienformen im sozialen Wandel. Leske+Budrich Opladen.
- Schmid, W. (1998). Philosophie der Lebenskunst,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Segalen M. (1997). Die industrielle Revolution: Vom Proletarier zum Buerger. in: Geschichte der Familie Bd. 4,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 Shorter, E. (1989). Einige demographische Auswirkungen des postmodernen Familienlebens. in: Zeitschrift fuer Bevoelkerungswissenschaft Jg. 15.
- Sieder, R. (1987). Sozialgeschichte der Familie Neue Historische Bibliothek.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Singly, F.d. (1995). Die Familie der Moderne. Eine soziologische Einfuehrung. Universitaetverlag Konstanz.
- Stacey, J. (1991). Zurueck zur postmodernen Familie. in: Soziale Welt (H.3).
- Varenne, H. (1997). Love and Liberty: Die moderne amerikanische Familie. in: Geschichte der Familie Bd. 4,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 Vester, H.-G. (1993). Soziologie der Postmoderne. Muenchen.